

#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설명회 개최

### 전북교육청, 실효·효율성 제고 위해 매뉴얼 제작·보급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18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1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강당에서 실무수습 설명회를 개최했다.

실무수습이란 공무원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규 임용 전에 현장 경험을 통해 직무수행 시 필요한 업무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행정업무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전북교육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그동안 실무수습을 운영하면서 일선에 근무하는 담당자가 수습생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도 업무처리로 바빠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업무부담 및 체계적인 지도가 어려웠고 사립마다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새내기'와 '디딤돌(회장 이지연)'이라는 학습동아리를 운영해 교육현장에 배치될 신규 임용후보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잘 적응하고 행정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무수습 운영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급여 관리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공통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급 학교 및 기관 업무 담당자의 교육에 대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교육대상자에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 균등한 교육 여건을 제공하며 체계화 및 표준화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실무수습제가 한층 역동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실무수습 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임용예정 계급별 1호봉의 80%에 해당하는 보수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시보기간 단축, 호봉 산정 등 경력을 모두 인정받는다.

올해에는 10월 1일부터 교육행정직렬 107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공업·시설직렬 13명을 대상으로 석달간의 실무수습을 각급 학교 및 기관에서 실시한다.

정병익 부교육감은 이날 설명회에

서 전북교육청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한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성공적인 실무수습 운영을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무수습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통해 공직 생활에 첫걸음을 내딛는 신규 임용후보자들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공직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이 2018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1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강당에서 실무수습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주대가 1일 삼례여자중학교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꿈을 위한 구체적 계획 세워보는 시간'

### 전주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교육 만족도 높아'

전주대(총장 이호인)는 1일 삼례여자중학교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동안 지식 중심의 정규수업 과정에서 벗어나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전주대는 중학생의 체계적인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하여 진로와 관련된 4개 영역(진로이해, 진로·직업 탐색, 진로·직업 체험, 창의성 함양)에서, 16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삼례여중에서 진행된 교육은 1학년 6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주대에서 개발한 진로 워크북을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희망 직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꿈을 달성하기 위

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대 자유학기제 지원 진로 프로그램은 매회 48점(5점 만점)의 높은 만족도를 받을 만큼 중학교 현직 교사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사대의 흐름과 수요자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평가받으며, 교육 신청 학교가 꾸준히 늘어 누적 수강생 1만 1,000명을 넘어섰다.

전주대 이호준 입학처장은 "중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 설정을 돕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관련 교육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중·고등학교의 진로 설계와 교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지금까지 전북지역 50여 학교에서 130여 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필리핀에 교육정보화 인프라 지원

### ICT교육센터·공립학교에

### PC 107대·책상 40대 등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일 필리핀 카비테주 ICT 교육센터 및 공립학교에 개인용 컴퓨터와 책상 등 정보화기자재를 지원했다.

이 사업은 국내 교육정보화 모델에

대한 해외 관심이 급증하면서 정보통신기술 환경이 열악한 발전도상국에 한국형 이라상을 보급·확산해 정보화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교류협력 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전북교육청은 2016년 필리핀 카비테주와 교육정보화 교류협력약정서 체결에 따라 교육정보화 협력관계 유지,

지역간 우호증진과 전북교육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ICT 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의 현지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함으로써 OECD 가입국가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한국형 이라상의 보급 확산으로 국내 정보화 인프라 관련 기업의 참여를 통한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천연기념물 '제주마·흑돼지' 유전체 분석과 기술 산업화 모색

###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

### 재래가축 유전자원 활용 워크숍

전북대학교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단장 이학교 교수)은 제주도의 재래종인 제주마와 흑돼지에 대한 연구와 기술 산업화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워크숍을 열어 관심을 끌었다.

1일 전북대에 따르면 사업단은 지난 달 28일과 29일 제주대학교에서 제주도 재래가축 유전자원의 활용 방안

을 위한 워크숍 자리를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농촌진흥청 난지축산시험장, 제주마·제주재래흑돼지 생산자 단체 등 관련분야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우리나라 고유의 제주 유전자원이자 천연기념물 제347호인 제주마, 그리고 천연기념물 제 550호인 제주재래흑돼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를 통해

개발한 유전체 선발기술을 산업계에 연계·활용할 수 있는 기획 방향을 모색했다.

전북대 송기덕 교수와 김진수 교수는 각각 '제주 유전자원 기반 차세대 바이오그린사업 성과 활용 및 향후 방안'과 '4차 산업혁명시대 연구 성과 활용 및 향후 연구 전략'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고, 제주대 정동기 교수는 '제주돼지 기반 연구 성과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그동안 제주마는 몽골마,

서양의 더러브렛과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자원이거나 명확한 유전적 정의 없이 키, 몸무게와 같은 외형적 모습만으로 판단되었다"고 하였다.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 이학교 단장은 "사업단에서는 수년간 연구를 통해 제주마를 더욱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유전체 정보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제주도 유전자원인 제주마와 흑돼지를 체계적이고 학술적으로 보존·연구하면서 이를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원광대 창업지원단, 교내 ONE-STOP 창업상담창구 운영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은 교내 학생회관 오픈마켓에 원스톱 창업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청년창업 EASY 레시피'라는 이름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창업상담창구는 창업 기초부터 실전까지 ONE STOP으로 해결하고, 시제품개발비, 전문가 멘토링, 창업활동비 등 폭넓은 지원 사항 안내를 비롯해 기타 지원 사업 연계 및 정보안내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창업 수요자 준비상태

및 역량 등에 따라 맞춤형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창업 준비하는 학생들이 사업 방향과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즉각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에 원스톱 창업상담창구가 마련된 학과창업 오픈마켓은 지난 6월부터 문을 열어 학내의 우수 창업 아이템 전시와 제품 홍보 및 판매촉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제품 전시 외에도 단과 대학과 학과별 전시회 및 박람회를 통해 창업 및 문화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